



바이킹 주가 급등으로 본, 향후 영향 분석

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지난 주, 주가 +19% 급등 주요 요인 1) 경구 고용량(100mg)의 내약성 기대, 2) 4중 작용제 임상 진입, 3) 월간 제형 가능성 기대. 오는 11/3일 비만 학회에서 세부 데이터 확인 가능. 바이킹의 데이터 압박은 미국 대선 이후,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노보와 릴리 포함 여러 빅파마의 M&A 욕구를 자극할 것. 비만 트렌드 지속 예상.

◎ 바이킹 주가 지난 주, +19% 급등 요인은?

>> 지난 10/23일 3Q24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, 시장이 예상한 것 보다 **높은 용량(100mg, 경구)**에서도 효능/내약성 데이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, **4중 작용제(DACRA) 임상 진입, 월간 제형** 가능성을 언급하며 급등.

¶ DACRA, Dual amylin/calcitonin receptor agonists + GIP/GLP-1(VK2735)

>> 바이킹의 **비만 치료제 VK2735(GLP-1/GIP, 주사제)의 13주 2a상 데이터**를 오는 11/3일 비만학회에서 발표 예정
올해 초 VK2735 주사제 연구(VENTURE)에서 14.7%의 체중 감소를 확인한 바 있음.

학회 발표 포스터에 **월간 제형을 뒷받침하는 PK 데이터** 공개 예정

>> 비만 학회에서 VK2735의 경구제형 업데이트된 1상 데이터도 발표 예정

VK2735는 40mg 복용에 3.3% 체중 감소한 바 있는데, 11/3일 학회에서는 60mg, 80mg, 100mg 데이터가 발표됨.
고용량일수록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.

¶ 경쟁사의 4주 데이터: 릴리의 Orforglipron 3% 체중 감소율(구토 28%, 메스꺼움 39%), 로슈 6.1% 체중감소율(구토 70% 이상과 심한 설사), 노보 Monlunabant 3.3% 감소율(정신과적 부작용 발생)과 Amycretin 4% 감소율(구토 56%, 메스꺼움 75%, 설사 18.8%), Terns의 TERN601 740mg에서 4.9% 감소율(Amycretin, CT-99% 대비 안전성 확인) 다만 화이자와 특허 분쟁.

바이킹의 경구제 체중 감소율이 5~6% 이상 및 높은 안전성 확인된다면 **Best-in-class로의 지위를 공고히** 하게 될 것.

>> 이중 아밀린 및 칼시토닌 수용체 작용제와 VK2735 병용(DACRA) 전임상 데이터 제시. '25년 DACRA 임상 개시.
4중 작용제는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**기존 이중 작용제, 삼중 작용제보다 높은 효능을 기대할** 수 있음.

◎ 바이킹의 압박은 노보와 릴리 등 빅파마의 기술 거래와 M&A를 이끌어낼 것

>> 경구 비만 치료제는 피하(SC)주하제형으로 투여 시작 후, 경구제로 유지요법이 가능해 경쟁사의 경구제 성공은 노보와 릴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. 특히나 올해 노보의 경구 데이터 성과가 좋지 못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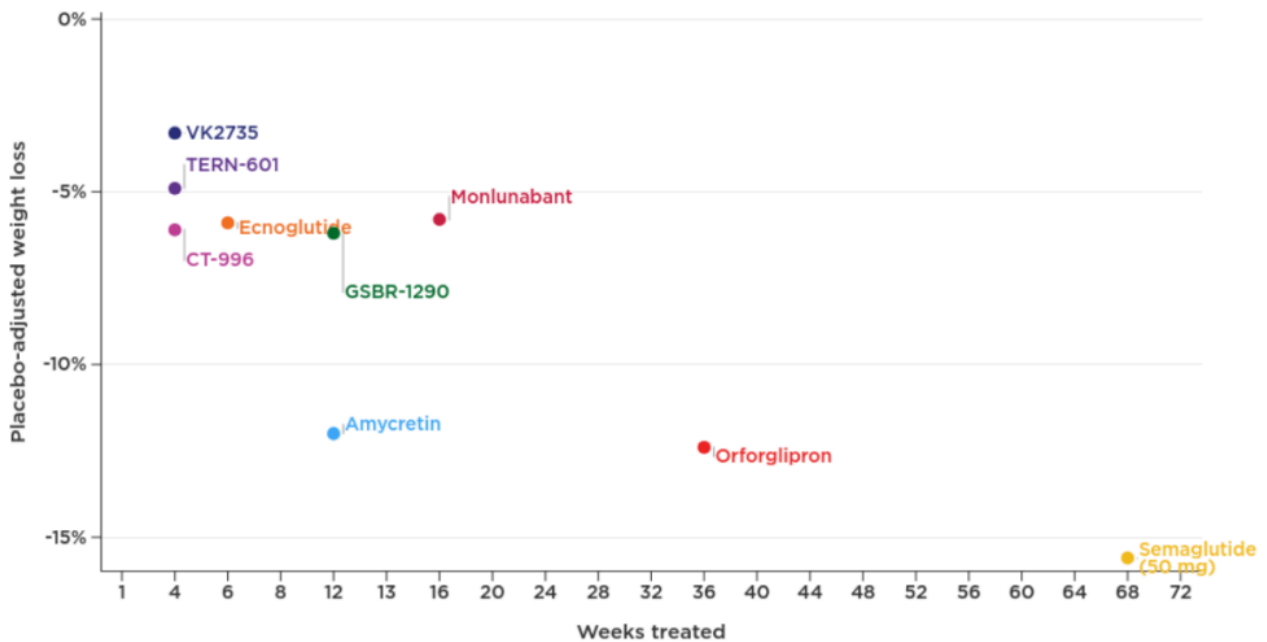
>> **미국 대선 이후**,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**활발한 M&A 및 기술 거래 예상**. 특히, 비만 분야에서 활발할 것.
바이킹 시가총액 \$8.5bn, 현금 \$930mn 보유로 유력 M&A 후보 대상.

>> 국내에도 **디앤디파마텍/Metsera가 경구 GLP-1 연내 1상 진입하여, 내년초 결과 발표** 기대. 긍정적인 경우, 후발 파이프

라인인 3중 작용제(GLP/GIP/GCG) 경구 기대감 또한 높아질 것. 바이킹의 인수에 최소 \$15bn 이상과 생산 시설 투자 비용 소요되는데,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 비상장사인 Metsera의 인수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.

이 외에 올릭스는 RNAi로 비만/MASH 치료제로 접근하는 등 모달리티 차별화 전략 보유하고 있으며, 지난 9월 기업설명회에서 이동기 대표는 다국적제약사와 기술이전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.

비만치료제 경구 제형 체중 감소 비교



자료: Biocentury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0월 25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